

## [2026수능] 도로에 발 묶이고, 수험표 없고…경기남부청, 153건 수험생 지원

등록 2025.11.13 10:44:50



[인천=뉴스시스] 이루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교문에서 한 수험생이 입실 마감 직전 순찰차에서 내려 급히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13. ruby@newsis.com

[수원=뉴스시스] 양효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경기남부 곳곳에서는 발이 묶인 수험생과 수험표 분실 등 문제가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153건(수험생 수송 88건·수험표 분실 및 미소지 8건·시험장 착오 등 4건·교통불편 등 기타 53건) 수험생 관련 사항을 접수해 지원했다.

이날 오전 5시41분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10km 지점에서 화물차 두 대 간 추돌 사고가 나 팔탄JC~비봉IC 구간이 전면 차단되면서 발이 묶인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35분 만에 50km 거리 시험장에 도착했다.

당시 A양은 화성 발안에서 서울시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로 향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고속도로에 갇혔다. 다급해진 A양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 경찰이 신속히 출동했으나 사고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A양을 도운 것은 사고 현장에 나와 있던 레카차였다. 레카차를 탄 A양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연락해 비봉IC에서 순찰차로 옮겨 탔다.

A양을 태운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해 50km 거리를 35분 만에 주파, 무사히 입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오전 7시28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서 정체로 인해 시험장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B양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40km 거리를 달려 수험장인 서울 진선여고에 B양을 무사히 내려줬다.

오전 7시40분에는 시흥시 은행고 앞에서 수험표를 미지참한 C군이 도움을 요청해 3km를 수송, 수험표를 찾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경찰에 학교 폭파 등 공중협박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시험이 끝나는 오후 6시30분까지 경찰관 858명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781명, 경찰 차량 등 장비 320대를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배치해 수험생 편의를 위한 소통 위주의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